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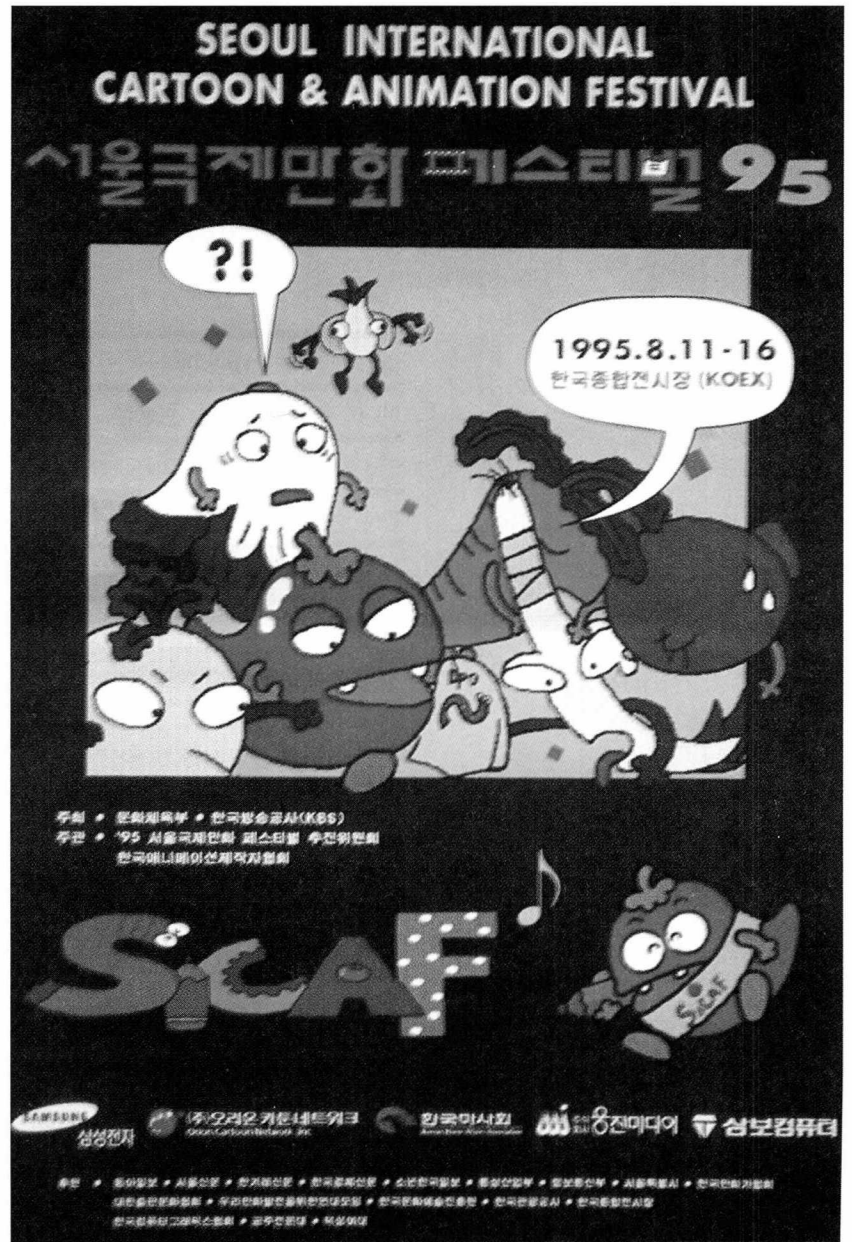
# '현실과 환상' 넘나드는 만화의 세계

## '95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 출품작 이모저모

'95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(SICAF 95)이 한국종합전시장(KOEX)에서 열렸다. 문화체육부와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출판문화협회 등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(8.11~8.16)에는 국내외 만화 1천여 점과 세계의 각종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우수 애니메이션 작품 1백여 점이 출품·상영됐다.

우리 역사상 최대의 만화잔치인 이 행사에는 개장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운집하여 1조원에 달하는 우리 만화시장의 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실감케 했다.

이번 페스티벌에 참가한 국내외 작품 가운데 몇점을 소개한다.



'95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 공식 포스터



행사장 입구의 전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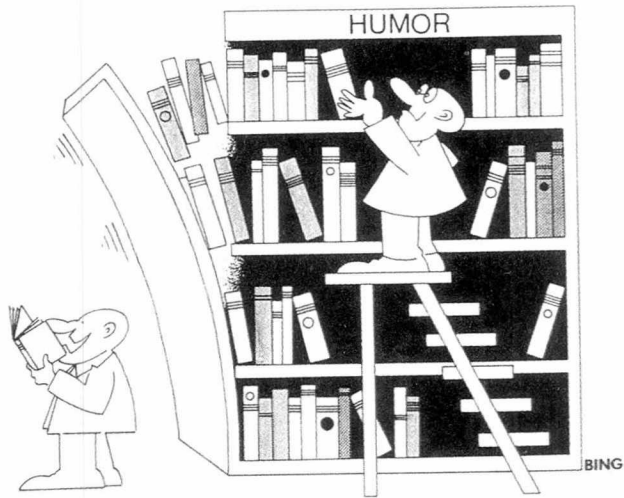




프랑스 앙글렘국제만화살롱 95년 그랑프리 수상작 - 필립 빌르맹(Philippe Vuillemin).



대전국제만화 대상전 과제부문 은상수상작. 세르게이 카사보프(Sergey Knasabav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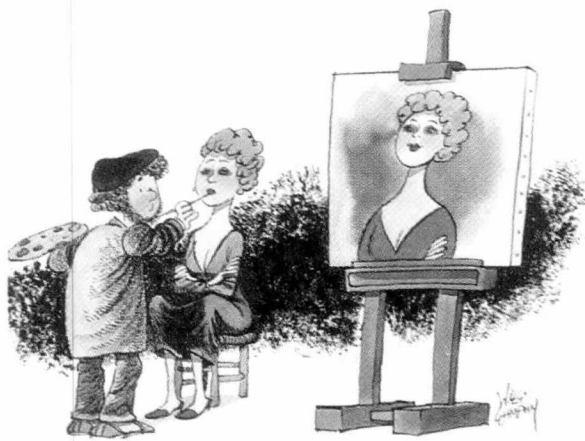
로날드 리빈(Ronald Libin, 벨기에)작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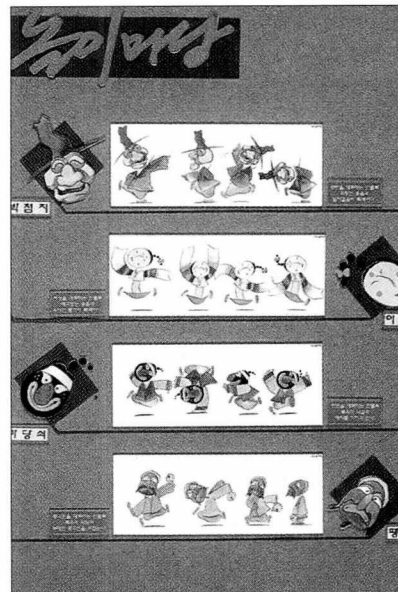
대전국제만화 대상전 과제부문 금상 수상작(최영매, 대한민국).



대한민국 만화캐릭터 공모전 입선작(백승헌). '우리 호랑이'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호랑이 이미에 번개모양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.



윌리 로만(Willy Lohmann, 네델란드)작.



제1회 대한민국 만화캐릭터 공모전 우수상 수상작(조윤진 27). 제목은 '박첨지와 이쁜이'.



국내 애니메이션 공모전 본선작품-한정인 감독. 상영시간 1분, 제목은 '콘서트'.